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마음의 번뇌를 없애라.
원수의 원인은 번뇌에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6월 2일)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태고종 20세 종정 지허 스님 추대

7월 15일 원로회의서 만장일치로



15년 만에 새 종정 모셔
"지계 겸비 선지식" 평가
종단 안정화 기대감 높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 제20세 종정에 지허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前 종정 혜초 스님이 2004년부터 15년간 3번의 임기를 만료한 2019년 4월 이후, 약 1년간 공석이었던 종정이 새롭게 추대됐다는 점에서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태고종이 그동안 각종 분규 등으로 그 위상이 약화된 상황에서, 종단의 정신적 스승인 종정을 새롭게 추대하면서 종단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재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7월 15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추대회의를 개최하고 지허 스님을 20세 종정으로 추대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원로의장 선출을 주요안건으로 한 원로회의였지만, 공석으로 1년간 지속된 종정 추대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일 종정추대 안건을 상정하고 추대 절차를 진행했다.

태고종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원로의장에 선출된 도광 스님은 당선 직후 종단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종정추대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으며, 이에 동의한 원로회의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등 3원장이 참여하는 종정추대회의로 전환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추대 절차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3원장은 "혜행이 원만하고 덕행이 수승한 금둔사 지허 스님을 20세 종정으로 추대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원로회의를 포함한 종정추대회의는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한데 이어 종법 절차에 따라 원로의장을 비롯한 3원장의 품청으로 지허 스님이 종정으로 최종 추대됐다.

지허 스님은 그동안 종단 특별법계인 대종사 법계 품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종사 법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7월 9일 고시(법계)위원회(위원장 재흥)는 지허 스님에 대한 대종사법계 추대 심의의 건을 통과시키고 이날 종법 절차에 따라 원로회의에 승인을 요청했다. 원로회의가 회의에서 지허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품수를 승인함에 따라 지허 스님은 종법상 종정 자격을 완벽히 갖추게 됐다.

태고종 20세 종정에 추대된 지허 스님은 지계를 겸비한 종단 내 손꼽히는 선지식으로 평가된다.

15세에 선암사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6년 선암사에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관음선원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통영 미래사 토굴 등지에서 용맹정진했으며 종파를 초월해 고암, 경봉, 전강, 구산 스님 등 당대 제방의 큰 스님들로부터 불법을 배웠다.

이후 순천 선암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비로암에 토굴을 짓고 3년 간 두문부출하며 수행에 전념한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에서 선과 다도를 익히면서 혼란기에 묵어버린 차밭을 손수 가꾸고 법제를 재현하는 등 사중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개진하기도 했다. 1994년 선암사 제3세 주지 소임을 맡아 적묵당과 조사당, 선각당 불사를 이끌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격을 높였다. 또 폐사된 대승암을 복원하고 대웅전을 비롯한 선암사 당우 상당수를 해체·복원하는 등 위상 제고에 힘썼으며, 1979년 7월 금전산 금둔사지에 금둔사를 복원, 중창 불사에 매진했다.

선암사 주지에 이어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2002), 제11대 중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2005), 선암사 부방장, 교육위원회 위원, 용연사 주지, 제2·4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제5대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제5대 원로의장 도광 스님은 이날 원로회의에서 다른 후보자 청봉 스님과 각 10표씩 동표를 받은 가운데, 지침에 따른 법랍순으로 원로의장에 선출됐다.



부처님 계율 수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7월 1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삼귀의계 ·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600명으로 제한해 열렸다. 사진은 연합회 스님들이 관정의식을 진행하는 모습. 관정의식에 사용된 관정수는 연합회 국장단 스님들이 수계법회를 위해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참배하고 감로수를 채수한 뒤 합수해 만들어졌다. 사진=공동취재단

상월선원 만행결사 '태화산 求道行覺'

7월 27~31일 공주 태화산서 결사 예비순례 열려

매일 10시간 씩 31km 도보행
코로나 방지에 대중공사 취소
100여 명 참가해 2그룹 나눠
인도만행과 비슷한 상황 훈련

"부처님께서는 45년간 걸어서 수행하시고 전법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공주 태화산에서 순례의 장을 엽니다. 상월선원 결사의 4대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선원 결사의 새로운 순례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공주 태화산 일대에서 펼쳐진다.

상월선원 인도만행결사 도감 호산 스님(수국사 주지)과 지객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 재가대표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7월 14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인도만행결사의 예비 성격으로 열리는 공주 태화산 순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공개됐다.

도감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동안거가 추억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지속해서 찾아가야 한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순례를 해 가는데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나태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100차까지라도 몸과 정신이 된다면 계속해 나갈 각오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공주 태화산 순례는 첫날인 7월 27일 오후 6시 입재식에 이어 다음날인 28일 새벽 3시 30분부터 본격 시작된다. 새벽예불과 함께 해뜨기 전까지 휴식 없이 걸은 후 오전 6시 주먹밥으로 아침공양을 한다. 이후 점심공양 때까지 20여 km를 걷고 오후 4시경 총 31km의 순례를 마친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총 인원은 1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두 그룹으로 나눠 시차를 두고 순례를 진행한다.

현재 신청한 이들 중에는 70대 스님들과 이재오 前 국회의원 등 고령자들과 경북대학교 2학년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도 포함됐다. 참가자들의 성별 뿐만 아니라 연령대도 다양한 만큼 걷는 속도를 함께 맞추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사 출신 참가자와 응급팀이 함께 동행한다.

지객 원명 스님은 "현재 비구 스님 40여명, 비구니 스님 10여명, 재가자 10명에 태화산 순례만 동참하는 인원 10명까지 많은 이들이 신청했다. 고령인 분들도 있어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무탈하게 모두가 완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례 코스는 한국문화연수원을 출발해 유구리를 거쳐 동원리와 염정리, 호계리 등을 지나 마곡사를 통과해 돌아오는 경로다.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 새벽예불 후 식사를 하지 않고 출발하여 오전 6시까지 총 8km를 걷는다. 해가 뜨기 전 최대한 많이 걷기 위해서다. 여기서 아침공양과 함께 휴식 후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3km를 걷는다. 점심공양 후에는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9km 구간을 걷게 된다. 마곡사에 당도하기 전에는 인도만행시 겪게 될 영축산 등반과 비슷한 1.5km구간의 오르막 구간을 지나게 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야간 대중공사와 강의 등은 취소됐으며, 원할한 진행을 위해 연수원 시설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순례 진행을 위해 상월선원 대중 일부는 7월 10일 1차 답사에 이어 7월 18일 2차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태화산 순례는 인도만행결사의 예비순례 성격인 만큼 예비순례 참석자 만이 인도만행에 참석할 수 있다.

정충래 이사는 "직접 답사해보니 지방도와 농도 등으로 구성돼 쉽지 않은 길이다. 준비를 잘하여 사부대중이 함께 완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산 스님은 "인도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다. 대중들이 함께 정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힘든 길이지만 한국불교를 중흥한다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